

■ 연구원 소식

○ 동학농민혁명 자료번역 사업 완료(11월 30일)

2018년 3월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문헌자료 번역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 임희택, 허인재, 정국현, 손민국 회원이 중심으로 진행한 이번 번역사업은 문헌자료 번역을 통한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료 확보와 번역 자료 공유를 통한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 확장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에 소재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헌 49종을 번역한 이번 사업은 양호초토사로 파견되었던 홍계훈의 접지를 비롯 난해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헌을 세밀하게 번역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번역에 수고하신 여러 회원분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 전북인물사전편찬사업 완료(11월 30일)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작되어 12개월동안 진행된 <전북인물사전편찬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인물사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지역 정체성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각 인물을 문화콘텐츠화하여 심니 교육과 홍보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여의 사업기간동안 전북을 빛낸 인물 1,000명을 선정하고 선정 인물별 스토리텔링 작업을 진행했고 결과물로 775쪽에 이르는 전북인물사전을 발간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연구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전북지역 3·1운동 사적지 답사가 있었습니다. 답사지에서 우리 연구원 전임연구원인 김천식 박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 강의 원고를 게재하오니 군산과 익산지역의 3·1운동에 관한 내용을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군산·익산지역 독립만세운동

김천식 박사(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일본은 오래전부터 침략의 야욕을 들어내더니 1905년부터 을사늑약으로 이를 노골적으로 나타내었고 1910년 한일합방이후 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 강산을 강탈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항일 운동이 나라 전역에서 전개되자 일본은 1911년 데라우치 총독 모살미수사건이라 불리는 '105인 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빌미로 민족운동을 전개한 민족지도자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였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저항정신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세계 제1차 대전이 1918년 11월 11일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국제연맹이 결성되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였는데 이는 일본에 짓밟힌 우리 민족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3·1운동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전적으로 자극 또는 의지한 것이 아니고 본래의 원인과 추진력은 한일합방 이전부터 있었던 의병활동 등 민족운동의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으며, 합방이후 10년간의 민족의식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한다.

독립운동은 상해에서 김규식, 여운형이 미국에서는 이승만, 안창호가 주도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광수를 대표로하는 한국유학생들로 구성된 조선청년독립단이 활약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손병희, 함태영, 박희도, 이갑성, 이승훈, 김병조 등이 핵심이 되어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드디어 서울 태화관에서 손병희를 대표로하는 각계 33인의 민족지도자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고 경신학당 출신 정재용이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이 선언서를 낭독하므로 만세운동이 촉발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독립만세운동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1. 군산 만세운동

군산 지역은 삼일 독립 만세 운동이 있기 이전부터 항일 투쟁이 벌여 왔다. 그 이전이라 함은 일본이 이를 촉발시켰다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일본은 미우라 고로를 주한공사로 임명하였다. 육군중장 출신의 과격한 인물인 그는 1895년 10월 8일에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명성황후 시해사건(을미사변乙未事變)을 주도하였다. 또한 일본은 을미사변 직후 단발령을 내리는데, 국민들은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이라는 조치에 대해 분노와 불만이 고조되었고 결국 '을미의병운동'이라 불리는 항일 투쟁이 시작 되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항일 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전북 태인에서는 1906년 3월 임병찬의 주도로 봉기 하였는데, 그는 군산 상평 출신이었다. 이로 인해 옥구 임피 지역의 유림들이 군산지역 의병항쟁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군산 지역에 의병장들이 배출되었음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군산은 의병활동이 부적합한 평야 지대여서 산악 지역인 정읍, 순창, 남원 등지에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전북의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월 5일 군산에서 맨 먼저 시작되었고 주축은 영명학교와 멜볼린 여학교의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구암예수병원 직원들과 개복교회 및 구암교회 교인들이었다. 군산은 미국남장로교 선교사들이 1894년에 발을 디딘 이래 교회, 병원, 학교를 세웠고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다. 이 중 교회와 학교를 통해 기독교 진리와 함께 올바른 인간교육, 민족정신을 고취 시켰다.

맨 처음 만세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영명학교 출신으로 서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다니던 김병수가 서울 만세운동을 경험한 후 군산에 내려와 영명학교 은사인 박연세(군산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후일 목사가 되어서도 항일 운동을 계속하다가 대구 형무소에서 옥사)를 만나 인쇄된 독립선언서 95장을 전달하였다. 박연세는 즉시 이를 영명학교 교사 김수영, 이두열, 송정현, 고석주 그리고 개복교회 교인 김성은, 유희순과 구암예수병원 직원 양기준, 유한중 등을 만나 3월 6일 군산장날에 거사를 약속하였다.

이들은 영명학교 학생 김영후, 송기옥, 조옥초와 함께 학생 기숙사에서 독립선언서 3,500매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거사를 준비했다. 그런데 3월 6일로 예정된 만세운동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3월 4일 경찰이 영명학교를 급습하였고 박연세, 이두열 두 선생을 수감 채워 군산경찰서로 끌고 갔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 학생들은 분개하여 군산경찰서로 달려가 두 교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3월 5일 새벽에도 재차 수색하자 만세운동을 앞당겨 5일에 교인, 학생들이 구암을 출발하여 만세운동을 시작했다. 시위는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시위를 하였는데 나중에는 천도교도와 일반 시민까지 합세하여 시위대는 1,000명이 넘었는데 당시 군산 인구가 13,000여명이었고 이 가운데 조선인이 6,500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참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모두 28회에 걸친 만세 운동은 연인원 30,000여명이 참가하였고 사망 53명, 실종 72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2. 익산 만세운동

군산에서 시작 된 만세운동이 인근 지역으로 퍼졌는데, 익산지역도 만세운동에 예외가 아니었다. 역시 익산에서도 남전교회가 큰 역할을 하였다. 미국선교사 전킨에 의해 1901년 설립된 남전교회는 학교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1910년에 남자학교인 도남학교를 1922년에는 여자학교인 미성학교를 설립하였다. 1923년에는 두 학교를 병합하여 신성학교라 명명하였고 민족교육의 요람이 되었다. 따라서 만세운동에 적극적이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익산의 만세운동에는 문용기 뿐만 아니라 김치옥과 박성엽도 한몫을 담당하였다. 두 사람은 남전교회 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김치옥은 군산 만세운동 주도 인물 중의 한사람인 임종우를 만났고 그로부터 '익산지방에서 주동하여 만세를 부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다.

김치옥은 곧바로 같은 교회 교인 박성엽을 만났다. 박성엽은 남전교회 창립멤버로서 신도들 가운데 영향력이 컸다. 김치옥은 박성엽의 협조 승낙을 받아 힘을 얻고 바로 문용기를 찾아 갔다. 문용기는 원래 남전교회 교인이었으나 궁말에서 한문 선생을 지냈고 영어에 능통하여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함경북도 갑산에 있는 미국인 광산에서 통역을 하다가 잠시 고향에서 쉬고 있는 중이었다. 문용기도 평소 애국심과 의협심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 인지라 김치옥의 만세 계획에 선뜻 승낙하였다.

이들 세 사람은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김치옥과 박성엽은 교인들 설득에 나섰다. 문용기는 잠시 교사로 있는 도남학교 학생들을 박영문과 함께 설득하였다. 또한 남전교회 집사 박다연도 이에 적극 찬동하였고 자신의 집을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등사하는 비밀장소로 제공하였다. 이에 교회 청년들도 적극 참여하여 익산 만세운동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되었다. 김치옥, 박성엽, 문용기는 남전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익산군 춘포면의 기독교인 박도현과 만자산교회 청년 강성원 등의 협조를 얻어내었다. 각 처의 사람들의 협조를 얻은 후 세 사람을 구체적 준비를 면밀히 세웠다. 거사일은 4월 4일로 정하였다. 이는 다른 지역 만세운동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에 시행하였음을 보아왔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4월 4일 정오 구시장(현 익산 남부시장)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 때 문용기는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군중 앞으로 나갔고 일본 헌병은 칼을 휘둘러 그의 오른팔을 베었다. 문용기는 왼손으로 다시 태극기를 들고 일어서자 헌병은 왼팔마저 베어버렸다. 일본 헌병은 두팔을 잃었음에도 만세를 부르는 문용기를 난자해 목숨을 앗아갔다. 문용기 이외 이날 현장에서 박영문, 장경춘, 박도현, 서정만, 이충규 등의 조선인이 진압 과정에서 순국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 개

귀곡성에 실린 슬픔의 미학, 요절한 ‘귀재’ 이하(李賀)

『신당서』 소재의 「이하전」은 다음과 같다. 전문을 모두 소개한다.

이하의 자가 장길이다. 그의 가계는 정왕(鄭王)의 후예에서 나왔다. 일곱 살에 벌써 시와 문장을 잘했다. 한유와 황보식이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믿지를 않았다. 그러다가 그의 집 앞을 지나가는 길에 들러, 이하에게 시 짓기를 시켰다. 이하가 거침없이 붓을 잡아 써내려가니, 평소에 지어놓은 듯하였다. ‘크고 화려한 수레가 찾아왔기에’라는 의미에서 「고헌과(高軒過)」라고 제목을 붙이자,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이때부터 이하는 유명해졌다.

몸이 가냘프고 연약했으며, 양쪽 눈썹이 이어졌고, 손톱이 길었다. 글씨를 빨리 썼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허약한 말을 타고 어린 종을 데리고 다녔다. 등에다 오래된 비단 주머니를 메고 다니다가, 우연히 시를 얻게 되면 이를 적어 주머니 속에 던져두었다. 먼저 제목을 정한 다음에 시를 짓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처럼 제목에 맞도록 건강부회하는 일이 없었다. 저녁이면 돌아와 이를 완성시켰으니, 크게 취한 날이거나 상가에 조문하러가는 날이 아니면 대개 이처럼 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종을 시켜 주머니를 뒤지게 하고는 써둔 시가 많으면, 곧바로 화를 내고 말하였다. “이 아이가 심장을 토해내야만 비로소 시 짓기를 그만두겠구나!”

그는 아버지의 이름이 진숙(晉肅)이었기 때문에 진사과에 응시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한유가 「휘변(諱辨)」이란 글을 지어 변호하였지만, 끝내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그의 시문은 기궤(奇詭)함을 숭상하였는데, 지은 작품들은 놀랍고 뛰어났다. 그리고 일반적인 작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당시에 흉내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악부 수십 편은 운소원(雲韶院)의 여러 악공들이 모두 음악에 맞추어 연주하였다. 그는 협률랑(協律郎)이 되었는데, 27살의 나이로 죽었다.

그와 교유했던 권거(權璩)·왕삼원(王參元)·양경지(楊敬之) 등이 매번 이하가 시를 지을 때마다 가지고 갔다. 또한 이하가 일찍 죽은 탓에, 그의 시가는 세상에 전하는 것이 드물다.

이번 주에 소개할 이하의 시는 「大堤曲(대제곡)」이다. '대제(大堤)'는 양양(襄陽) 주변에 소재하던 색향(色鄕)의 이름으로, 여기에 사는 창기 하나가 떠나가는 정든 남정네를 만류하는 내용이다.

■ 작품 및 번역

大堤曲(대제곡 /대제의 노래)

妾家住橫塘(첩가주횡당) 紅紗滿桂香(홍사만계향)
첩의 집은 황당에 사는데 붉은 비단에 계수 향이 가득해요.

靑雲教綰頭上髻(청운교관두상계) 明月與作耳邊璫(명월여작이변당)
푸른 구름 시켜 머리 틀어 올리고 둥근 달이 내 귀고리가 된답니다.

蓮風起江畔春(연풍기강반춘) 大堤上留北人(대제상류배인)
연꽃에 바람 이는 강가의 봄날이라 대제에서 북으로 가는 님을 만류하나니,

郎食鯉魚尾(낭식리어미) 妾食猩猩脣(첩식성성순)
낭군께서는 잉어 꼬리를 잡주세요 첩은 성성이 입술을 먹으렵니다.

莫指襄陽道(막지양양도) 綠浦歸帆少(녹포귀범소)
양양 가는 길은 가리키지도 마세요! 푸른 포구에 돌아오는 배가 드물답니다.

今日菖蒲花(금일창포화) 明朝楓樹老(명조풍수로)
오늘은 창포 꽃이 피었지만 내일 아침이면 풍향수 벌써 시들어 버릴걸요.

파리의 명소(3) 무명 화가들의 애환이 서린 테르트르 광장



무명화가들의 천국. 테르트르 광장의 풍경

1900년도 초 피카소는 바로셀로나에서 파리로 왔다. 그는 스페인 남부 항구도시 말라가에서 태어났고 14세에 양친을 따라 바르셀로나에서 살았다. 1901년부터 프랑스와 바로셀로나를 왕래하다가 파리로 이주하였다. 후일 그는 세계적인 화가로 명성을 날렸고 사후인 현재도 그의 이름은 건재하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그는 무명화가로서 몽마르트 광장을 오르내렸다.

피카소가 그러하였듯이 마네, 툴르즈, 로트렉, 드가, 모딜리아니 등 프랑스 화단을 주름잡았던 세기의 화가들도 한 때 이곳 몽마르트 언덕에서 무명 시절을 보냈다. 대부분의 무명 화가들은 이 무렵 그림이 팔리지 않아 무명의 설움을 안고 고달픈 삶을 살았다.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려도 늘 주머니는 비어 있었으니 허전한 그 심정 무엇으로 달랠겠는가! 그들은 해가지면 자연스레 인근 선술집에 모여 회포를 풀었다. 몽마르트 아래 주변이 유흥가가 된 것도 무명 화가들이 모여 술잔을 나누며 생활의 고달픔을 잊으려 했던 그때의 분위기와 연관이 있다.

몽마르트 언덕에 가려면 파리 시내 어디서든 지하철을 이용하면 된다. 초록색 라인(12호선)에 있는 아베스(Abbesses)역에 내려서 약간 경사진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면 테르트르 광장에 닿는다. 또 다른 방법은 역시 지하철 청색 라인(2호선) 앙베르(Anvers)역에 내려 북쪽 방향 길을 따라 가면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 입구에 닿고 거기서 올라다보면 하얀 사크레 퀴르 성당이 하얗게 빛나고 있는 광경이 시야에 들어온다. 올라가서 성당을 구경하고 오른 쪽으로 돌아가면 무명 화가들의 애환이 서린 테르트르 광장이 나온다.

광장의 분위기는 활기를 띤다. 초상화를 그려주겠다는 호객행위도 만만찮다. 몽마르트르의 추억으로 초상화 한 점 괜찮다. 그러나 값이 천차만별이므로 잘 알아보고 얼굴을 맡겨야 할 것이다. 이 광장은 밤이 되면 낮과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된다. 적당한 조명이 분위기를 은은하게 만들어주고 노란 조명이 새어나오는 카페에서 맥주 한잔은 낭만이 된다. 다만 아무래도 밤의 파리는 조심을 해야 하는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아베스역에서 내려 사진의 골목을 따라 가면 테르트르 광장이 나온다. 돔형 지붕이 사크레퀴르 성당이다.



밤에 만난 사크레퀴르 성당

■ 후원사업 안내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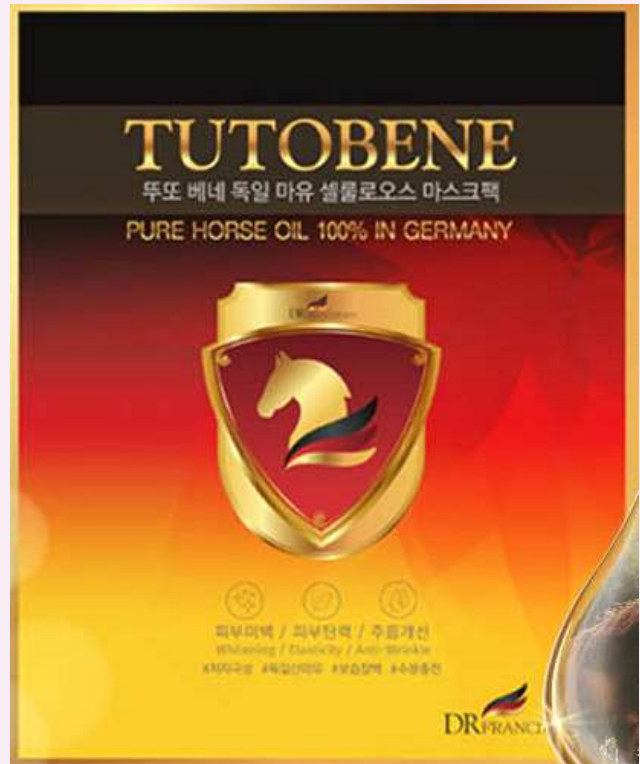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마유팩 30g * 5매 >

-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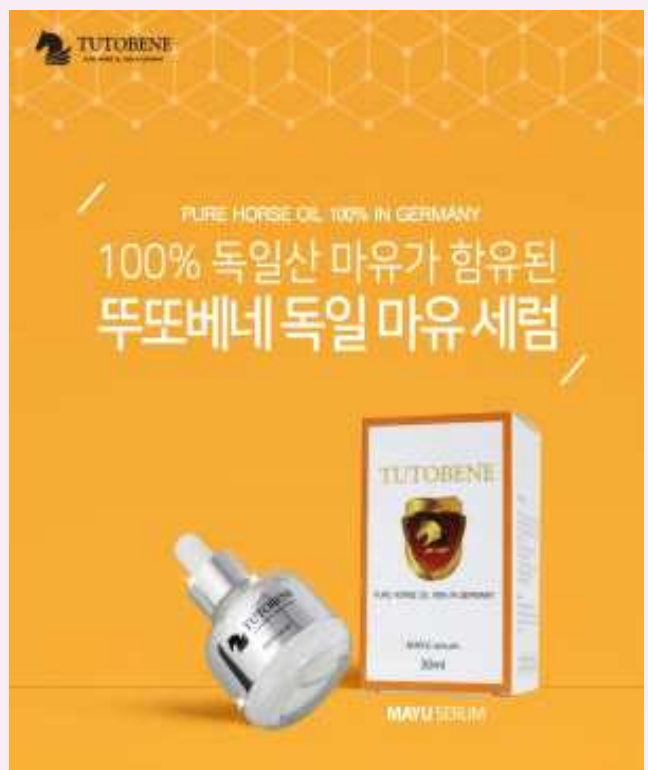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 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